

<환 영> 살롬^^ 특새 첫 주 나온 조원들을 격려합니다. 지난 주 특새를 나누고, 이번 주간 특새를 계획합니다.

<찬 양> ㄱ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 날까지~)

<말 씀> 행 14 : 21 ~ 28

1.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선교여행의 반환점이 되는 중요한 지명은 어디입니까?(행14:20) 두 사도는 경로의 역순으로 각 선교지를 되짚어 돌아갑니다.(14:21) 왜 코스를 되밟아서 돌아갔을까요?(14:22)
2.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제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성숙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까? 자신의 경험을 서로 나누어봅시다.
3. 두 사도의 1차 전도여행의 종착지는 어디입니까?(행14:24~26)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14:28)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을 다시 한 번 살펴봅시다.(13:1)
4.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 어떤 경위가 있었습니까?(행13:2~3) 금식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의 열매는 안디옥 교회가 누구의 통치하심에 어떻게 반응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발표해봅시다.
5. 주님의 대위임명령을 읽어봅시다.(마28:18~20) 가서 제자삼고,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지키게 하는 전제가 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28:18) 이 말씀은 누구의 통치하심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주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나갈 때 무엇을 확인하게 됩니까?
6. 요셉은 17세에 꿈을 꾸었습니다.(창37:2,5) ‘17’과 ‘꿈’의 히브리어적 의미를 찾아봅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요셉의 인생 속에서 성취되며 하나님의 꿈은 말씀을 통해 들어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개인의 일터와 이번 겨울선교에 적용하며 구체적으로 결단해봅시다.

<기 도>

1. 개인/가정: 하나님의 꿈이 말씀을 통해 내 사명이 되어 주님께 순종하는 삶 살도록
구원, 신앙, 건강, 가족, 진로, 결혼, 관계 등의 특새의 기도제목들의 응답과 열매를 위하여
2.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주님의 제자삼는 교회를 위하여
담임목사님의 강단사역과 성령충만함 위해
31차 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한 하나님의 꿈과 2014년 겨울선교 준비를 위하여
2013년 마무리와 2014년 사역을 위해
연말 구제사역과 주변의 소외되고 외로운 영혼들을 회복을 위해
3. 나라: 민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북한 교회와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하여

<설교요약>

1. 두 사도는 제자삼고,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 굳게 하기 위하여 일차선교여행 역순으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간다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의 반환점인 더베에까지 가는 동안 큰 환난이 있었습니다.(14:20) 상식선에서 그 길을 다시 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도는 1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하면서 경로의 역순으로 각 선교지를 되짚어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습니다.(14:20,21) 왜 두 사도는 안디옥에서 출발한 더베까지의 여정에 고난이 많았음에도, 다시 그 코스를 되밟아서 올라갔을까요? 성경은 두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째, 양육을 위하여 성도들을 제자 삼고, 둘째 무서운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굳세게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니다.(14:21,22) 출산 후 아이가 탄생하면, 사람 구실하도록 키워야 합니다. 「복음중심의 제자도」(조나단 도슨 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접하는 순간 제자가 되며, 그 후 그리스도인이 되어 간다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보통 훈련 받는 사람을 제자로 착각합니다. 제자훈련은 모든 성도들을 위한 공동 필수과목입니다. 제자훈련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제자로 자라도록 양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통과 의례로서 환난과 고난이 따릅니다. 과거에는 자신의 이익을 좇아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유익을 좇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무병장수나 고지대를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고난을 통해 성숙하게 합니다.

2.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제자가 되어 순종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놀랍게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제자라고 불립니다.(14:28) 두 사도가 선교여행을 시작할 때에는 제자라고 부를 수 없는 공동체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지도자 바나바, ‘검다’는 의미의 니게르 사람이면서 유대식 이름을 가진 시므온, 리비아 출신의 무명의 루기오, 헤롯의 어린 동생 마나엔과 아직 검증되지 않은 인물이었던 사울이 섬기고 있습니다.(13:1) 이렇게 다양하고 특이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만나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어 제자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안디옥교회는 주를 섬겨 금식하였습니다.(13:2,3) 사람은 외부로부터 오는 음식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금식은 세상이 주는 힘으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로만 경영하겠다는 가장 적극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세상의 통치와 원리를 끊어내게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금식으로 원리를 세우자, 성령님의 통치에 따라 가장 이상한 조합인 바나바와 사울을 뽑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 일에 순종하였고, 보내어진 두 사도를 통해 복음의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3. 우리가 꿈꾸는 제자삼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이다

우리는 대위임명령(마28:18~20)의 세 가지 명령형 동사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춘 나머지 제자훈련에서 훈련만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에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가서, 제자삼고,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이루어진 일들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령충만한 공동체는 순종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어떠한지 할까요? 요셉은 꿈꾸는 자의 대명사였습니다. 요셉은 17세에 꿈을 꾸었습니다. 히브리어 ‘17’은 “입”, “언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에게 꿈을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꿈이란 히브리어 ‘할람’은 “헌신”, “성취”라는 의미도 갖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요셉의 인생 속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꿈은 말씀을 타고 들어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내 꿈이 포기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삼일교회는 말씀으로 성장하여 순종하는 제자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